

‘나홀로 추석’ 결심한 회사원들...더 큰 고민은 “뭘 할까?”

서울 시민 10명 중 7명 “이동 계획 없어” “지인들과 집에서 요리 해먹을 예정이다” 방향제 만들기·넷플릭스·집에서 운동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추석연휴 기간 집에 머무르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추석연휴 기간 외출을 최소화하며 집에서 놀거리를 찾는 중이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김모(34)씨는 고향이 경북 포항이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이번 추석연휴를 집에서 친구와 보내기로 했다. 김씨는 22일 뉴스에 “저처럼 혼자 사는 친구와 함께 집에서 방향제를 만들기로 했다”며 “음식은 시켜먹고 하루종일 집에 있을 것 같다. 집에서 홈트레이닝 운동도 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울산이 고향인 전모(30)씨도 비슷한 상황이다. 전씨는 “고향은 울산이고 할머니는 의령에 계신데, 부모님이 이번엔 코로나19 때문에 내려오지 말라고 하셨다”며 “이번에 저처럼 고향에 안가는 지인 2명과 함께 집에서 요리를 해먹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보드게임을 사서 지인들과 함께 할까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회사원 양모씨는 코로나19로 부모님이 있는 경기도 동탄으로 가는 대신 회사 당직을 하기로 했다. 양씨는 “추석연휴 당일에 당직이

잡했다”며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있었는데 검사검사(일하면서) 추석연휴를 보낼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직을 안하는 기간에는 집에서 음식을 시켜먹고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 방배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33)씨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계속 가게 문을 열 생각이다. A씨는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 꽤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내려가지 않고 카페 운영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추석 연휴기간 일을 하진 않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사람들도 고민에 빠졌다. 서울 목동에서 근무하는 정모(33)씨는 “아직 고향에 갈지 여부는 미정”이라며 “못 내려가면 집콕(집에 머무는 것)을 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어디 갈 수도 없으니 뭘 할

지 좀 더 생각을 해봐야한다”고 말했다. 손모(35)씨는 “아직 뭘할지 생각을 안 해봤다”며 “집에서는 내려오라고 하지만 상황상 가진 힘들거 같다. 그렇다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21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과 서울연구원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8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이번 추석 연휴 장거리 이동 계획이 없거나 있었는데 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오는 추석 및 명절 연휴에 장거리 이동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6.8%는 이동 계획이 ‘없다’, 16%는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취소했다’고 답했다. 72.8%가 추석(10월1일)과 개천절(10월3일)이 포함된 9월30일부터 10월4일까지 고향 등 장거리 이동 계획



지난해 추석의 마지막 연휴 날인 9월15일 전북 전주시 전주역에서 고향에 들렀다 일터로 돌아가는 귀성객들로 전주역 승강장이 북적이고 있다. 2019.09.15.

은 세우지 않은 것이다. 이동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를 가족 구성원별로 보면 4인가구가 37.1%, 3인가구 21.0%, 1인가구 18.1%, 2인가구 17.1%, 5인 이상 가구 6.7% 등이었다.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 코로나19확산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등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조치를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신봉우기자



‘독감 예방 접종 중단’ 안내문 부착 22일 광주 북구 한 대형병원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접종 연기’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13~18세 대상 백신에서 유행상 문제점을 발견, 예방 접종을 일시 중단한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광주·전남 독감백신 무료접종 중단, 6개월~18세·임신부

유료접종은 예정대로

독감 예방백신 유행 과정의 문제로 인해 광주와 전남에서 예정된 국가 무료접종이 중단됐다. 광주시와 전남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22일 오전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 병·의원에서 예정됐던 겨울철 국가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계획이 백신 유행

과정의 문제로 전면 중단 결정됐다. 광주지역 접종 중단 대상은 생후 6개월~18세 25만8000여명과 임신부 7000여명이다. 전남은 13~18세 8만3000명이며 22개 시·군 보건소에서 납품받아 보관 중인 백신은 폐기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접종은 의사당 100명으로 제

한, 예약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날 예약자 현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또 백신 제품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무료접종을 재개할 예정이다. 반면 인플루엔자 유료 대상자 접종은 예약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62세 이상 독감 백신 접종도 계획에 따라 다음달 13일부터 이뤄진다. 기동취재본부

부산 확진자 ‘순천시 3일간 장례’ 방역당국 발칵

자가격리 위반한 채 순천시 3일 간 체류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남성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전남 순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가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4일간 머무른 후 확진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부산시 북구청은 이 남성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순천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도 관할 순천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은 데다 하루 2회 실시하는 모니터링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부산 362번 확진자와 지난 6일 부산시내 한 식당에서 접촉해 17일 오후 9시55분께 부산 북구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받았다. 하지만 이미 전날인 16일 버스를 타고 순천으로 이동했던 A씨는 하루 친척집에 들른 후 가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3일 간 순천 한국병원 장례식장에 머물렀다. 이후 19일 친척과 함께 자가용을

타고 부산 자택으로 이동하고, 20일 예야 부산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21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날 A씨가 순천의 친척들에게 확진 사실을 알리면서 순천보건소도 A씨가 다녀간 것을 뒤늦게 파악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같은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고, 즉시 해당 장례식장 CCTV, GPS 등을 확인해 171명의 신원을 확인해 검사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추가 접촉자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

순천시 3일간 장례’ 방역당국 발칵

순천시, 부산 북구청 상대 코로나19 구상권 청구

순천시는 부산에서 순천에 다녀간 확진자와 이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한 부산시 북구청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17일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고도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A씨와 당시 대상자가 관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순천보건소에 통보해 주지 않은 부산시 북구 보건소의 책임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부산시 북구보건소는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A씨에게 하루에 두 번 전화로 체크를 해야 하는 자가격리자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순천시는 보건소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밀접접촉자를 비롯해 해당 장례식장에 같은 시간대 동선이 겹치는 200여 명의 검체 채취를 해 분석하는 등 물질적·정신적인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더구나 불과 한 달 전 순천 5번 확진자로부터 비롯된 코로나19 사태로 순천의 경제가 얼어붙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던 점에 비춰 볼 때, 28만 순천시민의 밤잠을 설치게 만든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사태가 수습되는 즉시 부산시 북구청과 A씨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